

Market Intelligence

1. 세계경제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	1
2. 주요 통계	3
3. 러시아·EU의 경제블록화 전망	4

주요 동향

- ◇ 美, 1월 Fed 양적완화조치 규모 추가 100억달러 감축
 - 2월부터 종전 750억불에서 650억불로 축소기로 발표
 - 경기회복세에 따라 양적완화조치 규모감축 지속 전망
- ◇ 獨, 1월 기업신뢰지수 예상(110.0)을 상회한 110.6 기록
 - 3개월 연속 상승, 2011년 7월 이래 최고치
 - (중앙은행) 수출과 생산 모두 개선, 1분기 경기회복 가속화 전망
- ◇ 日, 작년 무역적자 전년(6.94조엔) 대비 사상최대인 11.47조엔
 - (재무성) 3년 연속 적자 시현. 원전가동 중단과 엔화약세에 따른 수입에너지 비용 급증 등에 기인
- ◇ 터키, 기준금리 4.5% → 10%로 큰 폭 인상
 - 예상 금리인상폭(1~3%p) 보다 큰 폭 인상
 - (원인) 리라화 가치 작년 美 달러화 대비 17% 하락후 최근 연일 사상 최저치 경신과 美 Fed의 양적완화 규모축소에 대한 대응
- * 최근 신흥국 중앙은행 금리인상 사례
 - 남아공 중앙은행 6년만에 처음으로 0.50%p 인상(기준금리 5.5%)
 - 인도 중앙은행 0.25%p 인상(기준금리 8%), 5개월간 3번 인상
 - 브라질 중앙은행 지난해 4월부터 7차례 기준금리 3.25%p 인상, 현재 10.5%인 기준금리 올해 연말 11% 예상

① 외환시장

- (원-달러, 원-엔) 원화는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및 연휴를 앞둔 수출기업들의 달러 매도 등으로 **달러화 및 엔화 대비 강세**
- (엔-달러, 달러-유로) 美 달러화는 美 양적완화 추가 감축 전망 등으로 **엔화 및 유로화 대비 소폭 강세**

구 분	'13년말	'14. 1. 24	'14. 1. 29	전주비
₩/US\$	1,055.4	1,080.4	1,070.4	△10.0
₩/100¥	1,002.3	1,046.3	1,035.9	△10.4
¥/US\$	105.30	103.26	103.33	0.07
US\$/€	1.3736	1.3688	1.3661	△0.0027

② 채권시장

- (韓 국채금리) 우리나라 경제지표 호조* 등으로 **소폭 상승**
* '13년 경상수지 707억달러(사상최고치, 16년 연속 흑자)
- (美 국채금리) 신흥국 위기 재부각되며 안전자산 수요증가로 **하락**

구 분 (%)	'13년말	'14. 1. 24	'14. 1. 29	전주비
한국 국고채(3년)	2.86	2.86	2.88	0.02
미국 국채(10년)	3.03	2.72	2.64*	△0.08

*1.31자

③ 주식시장

- (韓 KOSPI) 신흥국 위기 가능성과 우리나라 경제지표 호조가 혼조세를 띄며 **보합세** [(1.24) 1,940.56 → (1.29) 1,941.15]
- (美 DJIA) 보잉·야후·아마존 등의 실적부진과 유로존 디플레이션 우려*로 **하락** [(1.24) 15,879 → (1.31) 15,698]

*EU 통계청, 1월 유로존 소비자물가지수 전년 동기 대비 0.7% 상승('12월 0.8%)

2 주요 통계

- ① **고용동향(12월)** : 실업률 3.0%(전년 동월 대비 0.1%p ↑), 고용률 59.1%(전년 동월 대비 0.8%p ↑)
- 취업자는 2,496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6만명 증가
 - 상용직 증가세 유지와 더불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,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 취업자 증가
- ② **산업생산(12월)** : 서비스업 등에서 감소하였으나, 광공업이 증가하며 전월대비 0.1%p 증가(전년 동월 대비 1.2%p 증가)
- 광공업 생산은 전월대비 3.4%p, 전년 동월 대비 2.6%p 증가
 -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7.7%로 전월에 비해 1.9%p 상승
- ③ **BDI지수** : 1,110으로 전주대비 136point 하락
- 中 춘절을 앞둔 물동량 감소의 영향으로 하락 지속
 - 금주 HRCI 지수 미발표
- ④ **유가** : 미국 원유재고의 예상 外 증가 및 美 증시 약세 등으로 WTI油를 제외하고 소폭 하락

(US\$/배럴)

유종	1월 24일	1월 31일	전주비
WTI유 현물	96.73	97.45	0.72
Brent유 현물	108.62	107.27	△1.35
두바이유 현물	104.13	103.77*	△0.36

* 1.30자

- EEU와 EP의 경제블록 확대의 핵심으로 **우크라이나의 전략적 중요성 부각**
 - (러시아) EU 동진전략을 막는 저지선 역할. 러시아산 원유·가스의 유럽 수출통로
 - (EU) 러시아를 제외하고 구소련 국가 중 가장 많은 인구(45백만 명)를 보유하고 있어 **시장확대와 동진전략의 거점**

우크라이나 인근 지도



EEU 및 EU 인구, GDP 등 비교

단위: 백만명, 달러

	인구	GDP	1인당 GDP
EU (28개국)	510	17.2조	33,758
EEU (3개국)	170	2.4조	14,163

2. 우크라이나 영입 추진으로 러시아·EU 갈등 확대

-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당근과 채찍(carrot and stick)으로 회유
 - 2013년 8월에 우크라이나의 EP 가입계획 발표 직후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산 철강, 우유, 초콜릿 수입금지 등 제재 실시
 - 러시아는 2013년 12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15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과 천연가스 공급가격의 33% 인하 계획 발표
 - 우크라이나 정부의 EP 가입 중단 선언 후, EP 가입 지지시위 발생, 최근 시위 격화 양상
- EU는 러시아의 EU산 자동차의 부당관세에 대해, 러시아는 EU의 자국산 철강 등의 불공정관세에 대해 상대방을 각기 WTO에 제소
 - EU는 2013년 10월 러시아의 EU산 자동차에 대한 재활용세(recycling fee) 부과를 부당한 관세 장벽으로 간주하고 WTO에 제소

- 러시아는 2013년 12월 자국산 철강과 비료에 대한 EU의 불공정 관세에 대해 WTO에 제소

3. 경제블록화의 전망과 시사점

- 경제블록화 대상의 핵심국인 **우크라이나**가 단기적으로 EEU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
 - 우크라이나 정부의 경제적 실의 추구가 주된 동인
 -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선진경제권 편입,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 등 지속적인 욕구 표출로 EP 가입 가능성도 여전
- EEU 중심으로 구소련 국가들에 대한 경제블록화가 가속화될 전망
 - 우크라이나의 EEU 편입 가능성이 여타국가(키르기즈, 타지키스탄, 우즈베키스탄, 투르크메니스탄)들의 가입에 긍정적으로 작용 예상
 - 이로 인해 EU의 블록화 경쟁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전망
- 러시아와 EU의 경제블록 확대경쟁이 무역분쟁 격화 가능성 미미
 - EU와 러시아 모두 양측에 대한 높은 무역의존도로 무역분쟁 격화 가능성 축소
 - 러시아의 대EU 수출(원유·천연가스 등)비중 52.9%, 수입비중 45.0%
- 우리나라는 러시아 에너지 수출시장 다변화 기회 적극 활용
 - 러시아는 아시아 등으로 에너지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전망이므로 우리나라는 러시아산 에너지의 장기 안정적 확보 노력 필요
 - '13년 우리나라의 러시아산 수입비중: 원유 4.4%, 천연가스 5.9%